

“변화 않으면 미래에 대가 치룬다”

조계종 신년 쇠신 다짐, 태고종 등도 중단발전 발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불교종단 대표들과 300여 사부대중이 종단협 신년하례 법회에서 쇠신과 변화를 통한 불교 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신묘년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잇따라 열고 불기 2555년 종무행정을 일제히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 기관 종무원 200여 명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변화와 쇠신의 중무를 다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시무식에서 자립을 위한 의지와 변화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불교계의 정부예산 의존에 대해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겠지만 10년·20년 후 보람을 느낄 것”이라며 불자들의 심시일반 보시와 노력으로 불사를 이뤄가자

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며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서원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불교라는 대발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조계종은 사찰 법회 및 각종 행사에 정부관계자 및 정치인의 참

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종무지침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 27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도 정부 및 정치 인사를 배제한 채 신년을 시작하는 하례법회를 병행했다.

태고종은 5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시무식을 병행하고 12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 친견 신년하례를 병행한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의 밝은 마음을 바탕으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利他)의 큰마음을 내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도 4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시무식과 총인 도흔 정사 친견 신년하례를 병행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과 총지종은 3일부터 1주일 간 새해 불공에 들어갔다. 총지종은 13일 오후 2시 강남 총지사서 신년하례를 병행한다. 천태종은 별도의 시무식이 없이 음력 설날을 전후해 신년하례를 병행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iholo@hanmail.net

봉정사 극락전 누더기 보수됐다

황평우 소장 문제제기에 문화재청 “이상 없다”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보수가 남남으로 이뤄져 목재가 이탈하는 등 목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월 4일 “봉정사 극락전 곳곳에서 목재가 부분 이탈되는 심각한 현상이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현재 전면 재제작에 들어간 광화문 현판의 균열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이다.

황평우 소장이 봉정사 극락전 부재의 이탈을 발견한 곳은 전면 도리 부분과 측면 보, 측면 장방 부위로 극락전 전후좌후에서 5곳이나 된다.

황 소장은 “부재 이탈은 도리와 보 등 건물 하중을 받는 부위에 집중돼 있다.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대들보가 부러져 범당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7년 전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한 수리기술자의 말을 인용해 “수지는 굳으면 딱딱한

돌덩이처럼 견고해지는 성질이 있어 계절에 따른 온도(습도) 변화에 의해 수축·이완을 거듭하는 나무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부재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일, 문화재청은 “긴급 확인조사 결과 봉정사 극락전의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황평우 소장은 재반박문을 통해 “한국 고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와 의장”이라며 “부재와 부재의 결구(짜맞춤)의 미적 관점(의장)에서 보면 봉정사 극락전은 잘못된 보수 공사로 누더기 국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교사 석가탑(국보 제21호) 기반부 균열에 이은 봉정사 극락전의 부재 이탈로 정부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동섭 기자

“적당히 예산 받고 끝내려 말라”

◆명진 스님, 쓴소리

“조계종이 정부로부터 적당히 예산을 배정 받고 끝내려면 불교 내부에서 엄청난 지탄이 있을 것이다. 신도들 또한 심각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명진 스님이 봉은사 산문을 나선지 50여 일 만인 1월 3일 봉은사 신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MB정권을 질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님은 “한나라당 고홍길, 안상수 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좌파주지 적격 문제가 나왔을 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도 논의했다. 좌파주지는 내보냈는데 예산을 못 받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고 말해 정권 뿐만 아니라 조계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동섭 기자

◆“90%가 타종교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화재 위원 90%가 타종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문화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중앙승가대 등 종합학교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과 설립 비용은 종단이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발언은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등 중앙승가대 보직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다. 조동섭 기자

◆구제역 종식 발원 천도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월 4일~2월 3일 교구 말사와 함께 ‘구제역 확산방지’와 희생가축을 위한 천도기도와 법회’를 병행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6일, 가평 백련사(주지 승원)는 구랍 30일 구제역 살처분 가축 위령재를 병행했다. 노덕현 기자

죽비와 목탁

니터의 불교문화체험 되지 않으려면

폴 니터(Paul. F. Knitter) 교수 부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일정 내내 취재진들은 밀착취재를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소감을 물었다. 종교간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된 한국에서 신학자인 그의 방한은 이슈화되기 좋았다. 니터 교수는 불교 수행을 적극 수용해 그리스도영성을 깨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대화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의 화두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한국 개신교가 했는데 가톨릭 신학자가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중히 사과했다.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정중한 사과는 이내 불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찻집마다, 진정 원하던 종교간 대화는 아니었다. 니터 교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성급한 성과를 바라는 것일 수 있다. 한국 보수근본주의 개신교도들의 배타성과 조직적 편향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할 것일까?

폴 니터 교수는 기독교에서는 꾸준한 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개신교에서는 WCC(세계교회협의회)가 있다고 했다. WCC가 추구하는 종교간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차치하고 국내 보수 기독교단체부터 이 WCC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비롯한 정통보수신학 교단들이 2010년 1월 조직한 ‘WCC 대책위원회’가 그 예다. 갈등을 일으키는 개신교 내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물론인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행사에서 가톨릭·개신교 평신도의 참여는 전무했다. 20세기 들어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자리는 수차례 있었지만 일부 관심 있는 학자나 성직자들의 사적인 관심에 불과했다. 삶의 현장에서는 종교 갈등이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대화 협력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만남은 저명한 학자의 흥미로운 불교문화체험에 그칠 지 모른다. 아래로부터의 화합과 대화가 절실하다. 이상연·이은은 기자

민족문화수호지킴이

지역마다 만든다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공동위원장 영담·정유·원행)는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부장 영담 스님, 통도사 주지 정유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사업으로 10일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시작으로 11일 성도제일 맞이 전국사찰 동시법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와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만들고 지킴이 등을 조직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5 (2011)년 연수교육 시행 공고

불기 2555(2011)년 조계종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관련종법 : 승려법 제26조 및 교육법 제109조)

- 지난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은 여러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다양한 의견 제시 속에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2011년 연수교육은 작년에 개설한 강좌 중 스님들께서 많이 호응해주신 강좌로 그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강좌는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새롭게 의견을 주신 내용에 따라 추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변화된 세부내용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 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찰운영, 전법향상, 불교교학 등의 교육과정을 년 중 개설하였으니, 스님들께서는 원하는 강좌와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대상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1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① 일반연수과정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사찰경영지도과정 4박 5일
- 교육장소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 접수 ① 말사 주지스님께서는 1월28일(금)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교육신청 및 연수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월28일(금) 이후에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② 직할교구 말사 주지스님 및 그 외 스님들께서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한불교조계종 연수교육신청 홈페이지 (monkedu, buddhism, or, 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비 ①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②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께 모든 연수교육과정 교육비중 5만원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③ 교육과정을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들께는 2회차부터 교육비를 5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④ 승납 10년 미만이면 2개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들은 10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 교비납부방법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계) 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입금 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02-2011-1807~9 팩스) 02-732-4926

불기 2555(2011)년 1월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응